

원저 ( ) 증례보고 ( o )

제목

소아 골반 내 질환에서 로봇 수술 2 예 : 거대직장, 골반내 림프관종

소속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,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소아외과

저자

홍영주, 한석주

발표자: 홍영주

책임저자: 한석주

초록

---

(배경) 성인에서 직장 절제술, 전립선 절제술, 자궁 적출술 등의 골반 내 수술에서 로봇수술은 이미 표준 술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 하지만 소아환자에서 적용된 증례들은 전세계적으로 드물며, 국내에서 보고된 바는 없다. 본원에서 로봇으로 시행한 저위 전방 절제술 및 골반 내 림프관종 절제술 2 예에 대해 보고 하고자 한다.

(증례) 증례 1 : 1년 8개월 된 남자 환아로 출생 직후 직장회음부 누공을 동반한 항문직장 기형으로 최소 Pena 수술 시행 받았던 과거력 있으며 이후 발생한 거대직장으로 로봇 저위 전방절제술 시행하였다. 수술 전 처치는 개복술과 다르지 않았고 수술 시 자세는 양측 다리는 벌리고, 다리를 최대한 낮춘 low lithotomy 자세였다. 로봇은 환자의 왼쪽 아래에서 들어와서 도킹 하였다. 카메라와 3 개의 로봇 팔을 사용하였고 늘어난 거대 직장을 절제한 후 항문을 통해 절제된 장을 꺼내고, ambul 을 복강 내로 넣은 후 EEA(end to end anastomosis)기구로 문합 하였다. 총 수술 시간은 7 시간 34 분, 콘솔 시간은 5 시간 50 분이었고 출혈량은 30cc 였다. 수술 후 9 일째에 퇴원하였고 현재 5 개월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. 증례 2 : 5년 5개월 된 남자 환아로 좌측 서혜부 탈장으로 수술 시 복강 내에서 장액성 체액이 다량 배액 되었다. 수술 후 시행한 검사상 골반 내 6.0\*5.8cm 의 림프관종 발견되어 로봇으로 절제술 시행하였다. 수술 시 자세는 lithotomy 자세였고 림프관종이 환자 골반 왼쪽에 치우쳐 있어 로봇은 환자 왼쪽 아래에서 들어와서 도킹하였다. 카메라와 3 개의 로봇 팔을 사용하였고 monopolar 이용하여 박리하여 절제하였고 로봇 팔이 들어갔던 투관침으로 문제없이 꺼낼 수 있었다. 배액관 삽입 후 수술 종료하였다. 총 수술 시간은 4 시간 50 분, 콘솔 시간은 3 시간 05 분이었고 출혈량은 거의 20cc 였다. 수술 후 2 일째 배액관을 갖고 퇴원하였고 2 주째 외래에서 배액관 제거한 후 3 개월째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.

(결론) 소아에서 좁은 골반 내 수술에 있어 로봇은 요관 및 신경, 혈관 등의 시야 확보에 매우 유용하며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술식이다.